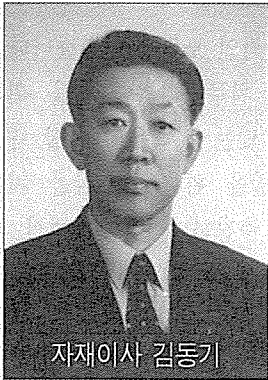


1998 치과계 전망

국산품 개발과 인지도 확산에 노력



자재이사 김동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재료에 대해 사용빈도가 높은 재료를 중심으로 품목별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미 한 가지 품목에 대하여는 임상 시험 중에 있고 금년 5월경에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 ...

무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회원 여러분의 건승하심을 빕니다.

우선 지난해 봄 치과용기기 설문조사에 많은 회원께서 응답해 주셔서 좋은 자료를 마련케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장비 보유현황을 관리함으로써 치과계의 어려움을 홍보하거나 대내용 또는 대정부용으로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IMF 한파로 시작된 치과계의 어려움은 사회 전반에 일고 있는 명퇴와 해고 등 가사의 근본이 흔들리는 상황에 따라 병원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또한 환율 폭등으로 인하여 상당 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각종 치과기자재의 가격 인상 또한 앞친 데 달친 격으로 우리의 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자재위원회에서는 얼마 전 대한치과기재협회와 환율폭등으로 인해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협의하여 치과기자재의 원활한 수급과 유통질서에 대한 협조를 구한 바 있습니다. 다만 97년 9월 1일부터 수입기자재에 대한

통관 절차가 다소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환율 변동과는 다른 각도에서 해당 부서와 접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재료에 대해 사용빈도가 높은 재료를 중심으로 품목별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미 한 가지 품목에 대하여는 임상

시험 중에 있고 금년 5월경에 그 결과를 발표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재 21편의 대한치과의사협회 규격을 증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미국치과의사협회가 갖고 있는 70여편 수준으로 점차 늘려 치과기자재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산 재료의 개발을 촉진하게 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 상당수의 국산기자재가 이미 국산화에 성공하여 시판되고 있으나 판매망의 부족과 인지도에서 다소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치협에서는 이러한 재료들을 널리 알리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많이 이용하여 외화 유출도 막고 우수한 국산품 개발의 촉매가 됐으면 합니다.

신규 개원의들은 요즘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이 어렵고 기자재에 대한 정보가 어렵기 때문에 각 시도에 있는 치과의사 신용협동조합을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온 국민 모두가 어려운 때에 회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